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종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기재부 예타 심의 통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의결... 국토부, 내년부터 기본계획 착수

2027년 개통 목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기업유치 활력 등 기대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구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새만금의 내부개발 촉진과 기업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결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계획을 착수할 계획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국비 1조2,953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쳐 대야를 잇는 총연장 47.6km 규모의 여객·화물 병용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의 핵심 SOC사업이다.

특히 이번 예타평가에서는 도민의 염원과 희망을 담은 동영상을 발표자료에 포함하는 등 정책성부분에서 평가점수를 확보하고자 전라북도·국토부·국가철도공단·새만금개발청·군

산시·전북연구원 등이 합심해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김윤덕·신영대·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 등도 예타가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새만금항에서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국제공항(2028년 준공, 7,8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4년 준공, 21,116억원), 동서도로(2020년 준공, 3,637억원), 남북도로(2023년 준공, 9,647억원), 새만금 신항만(2030년 1단계 준공, 2조 6,138억원) 등이 연결됨에 따라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마지막 한 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철도, 공항, 항만, 도로가 하나로 모이는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에 이어 내륙까지도 육·해·공 물류

시스템이 구축으로 새만금을 향한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동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B/C=1.11)이 입증됐으며, 생산유발효과는 3조 3,06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 8,000여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555억원으로 예측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부·기재부를 지속 방문해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한 교통기반시설로서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으며, "이번 새만금 철도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이 글로벌 생태문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 수소충전 기반 구축 본격

행안면 농공단지 일원에 부안 1호 수소충전소 준공

시간당 64kg로 하루 153대 수소승용차 충전 가능



전북도와 부안군은 28일 부안 제3농공단지에서 '부안군 1호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 수소충전소로는 네 번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 네 번째 수소충전소가 부안군에 들어섰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28일 부안 제3농공단지에서 '부안군 1호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최훈열 도의원,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충전소 시찰 및 수소 충전 시연 등을 진행했다.

부안 수소충전소는 부안군 행안면 제3농공단지 내에 자리잡은 부안군 최초의 수소충전소다. 구축에 국비 15억원, 도비 12.9억원, 군비 13.5억원 등 총 41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완주 수소충전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해 시간당 수소 64kg를 충전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승용차용 수소충전소(25kg/시간) 대비 2배 정도 큰 규모다. 하루에 수소승용차 153대(5kg/대 충전 128대/시간, 12시간/일 운영기준)와 수소서비스 38대(20kg/대 충전, 3.2대/시간 12시간/일 운영기준)를 충전할 수 있다.

전북도는 부안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부안뿐만 아니라 도내 서부지역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수소차 보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부안 수소충전소는 미래 부안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한 획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과 시설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부안 수소충전소 준공을 통해 부안군이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의 수소도시로

서 거듭나길 바라며, 전북도 또한 수소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2030년까지 동부권 등 도내 시군에 50개소 이상의 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이번에 준공된 부안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4개소(완주, 정주, 송천, 익산 2공단)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추가적으로 군산 지역 등에 수소충전소가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는 12월 기준 1,090대(승용 1,074, 버스 16)가 운행 중이다. /유호상기자·부안=김석진기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 예타 통과

부안 변산 대항리 인근 2027년까지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이 시행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28일 개최된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되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 준공한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사업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생태문명시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새만금 남측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에 2027년까지 국비 2,2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며, 전북 지방환경청이 사업을 시행한다.

조성면적은 3,75㎢(108만평)로서 1단계 면적(0.78㎢)의 약 5배로 축구장 면

적과 비교하면 약 500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으로 조성된다.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새만금 개발과 생태계복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야생동식물 대체 서식지'(149만㎡), 새만금 내측 수위 조절로 인해 드러난 노출지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여 자연친이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자연생태습'(103만㎡), 다양한 수역의 생태환경 연구 및 모니터링, 생태체험,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명소로 조성될 '국제생태환경체험원'(41만㎡), 통과형 수로를 조성하여 새만금 수위변화에 적응하고 생태적 수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대안위 '염색식물전이지'(64만㎡)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했으며, 지난 2019년 9월 착수에 2020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적편이추진을 위한 대면 설문조사가 약 1년여간 지

연되면서 최종 종합평가 분석이 올해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이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및 새만금개발청과 적극 공조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꾸준히 설명했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구 국회의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환경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해 사실상 예타의 최종 평가결과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회의에 배석, 전북도의 추진의지와 사업의 중요성, 국가정책 및 지역균형발전과의 부합성, 환경단체의 야생동식물 대체서식지 조성 요구 등을 평가 위원들에게 파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랑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謹賀新年

##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용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